

말하듯 노래하는 조승우·물오른 연기 옥주현 '전율'

전주미술관 '전동희 초대전'



이처럼 대중적인 뮤지컬 '스위니 토드'라니. 9년 만에 돌아온 라이선스 뮤지컬 '스위니 토드'는 대중성을 한껏 노르노르하게 구워 내놓았다.

자신의 가정을 파탄시킨 터핀 판사에게 복수를 하는 과정에서 광기의 살인을 저지르는 이발사 스위니 토드와 그가 내놓은 시체로 인육파이를 만들어 파는 러빗 부인의 잔혹한 이야기는 대중적이고 매혹적인 냄새를 풍긴다.

상업적인 뮤지컬 장르에서 이례적으로 전위적인 음악과 무대 언어를 선보이는 스티븐 손드하임의 걸작 뮤지컬이다. 하지만 2007년 LG아트센터에서 국내 초연할

손드하임의 뮤지컬 '스위니 토드' 난해함 벗고 코믹...대중과 통했다

당시 그로테스크함과 난해함으로 관객의 외면을 받았다.

류정환, 임태경, 홍광호 등 쟁쟁한 스타들의 호연과 작품성이 어우러졌지만 뮤지컬은 밝은 판타지라는 인식이 강했던 당시 뮤지컬 관객들은 이발사의 복수극에 관심이 없었다.

초연을 제작한 뮤지컬해본 대표 출신인 박용호 에이리스트코퍼레이션 공연사업부 문 리드 프로듀서는 이번 시즌에 작업을 했다. 스타 캐스팅에 일가견이 있는 신춘수 오디뮤지컬 대표와 뭉쳐 대중에게 손드하임 알리기에 나섰다.

오랜 역이든 실력력 부여하는 조승우·연기력까지 늘어난 옥주현

지난 시즌과 가장 달라진 점은 무대다. 그로테스크의 절정과 복잡한 기계장치의 묘미를 느끼게 해준 2007년 초연 무대에 비하면 한산하다. 절골 위주의 3층짜리 단일 세트.

조명을 통한 흰벽 배경의 그림자 미학을 선보이지만 대부분 여백인 빈 공간을 채우는 건 배우들이다. 토드 역의 조승우, 러빗 부인 역의 옥주현이 그 정점에 있다. 손드하임 작품이라는 점 외에 이번 '스위니 토드'의 가장 주목한 부분은 결출한 배우인 두 사람의 첫 조합이다. 흥행 면에서

남녀 톱배우의 시너지에 대한 관심은 당연했다.

조승우와 옥주현은 기대에 충분히 부응한다. 조승우는 오페라나 종교극 때위에서 대사를 말하듯이 노래하는 형식인 레지타티보를 뮤지컬에도 적용시키는 배우다.

그의 노래는 말 그대로 노래처럼 들린다. 기보다 선율이 있는 대사처럼 들린다. 피아노 반주로만 노래를 부를 때는 시 낭독 같고, 현악기가 가미되면 소설을 읽는 듯하다. 작사와 극작 구성에도 일가견이 있는 손드하임의 넘버 색깔과 분위기는 캐릭터와 그대로 겹쳐진다. 고난도의 가창력을 요하기 보다는 곡의 정서에 녹아들어야 하는 넘버들이다. 조승우에게 당연히 맛을 수밖에 없다. 짐작하지만 광기가 파리를 틀고 있는 토드의 넘버들은 조승우의 생명력 넘치는 연기와 노래와 함께 필떡거린다.

옥주현의 변신도 눈여겨 볼만하다. 그녀는 뮤지컬계에서 카리스마를 갖춘 여배우로 통한다. '위키드'의 엘파바, '마타하리'의 마타하리가 그랬다. 러빗 부인은 순수에 수다쟁이다. 옥주현이 쌓아올린 이미지를 산산조각낸다. 옥주현은 이 역을 거침없이 소화하며 이제 노래뿐만 아니라 연기에서도 물이 올랐음을 증명한다.

두 사람의 호흡이 극대화되는 건 1막 마지막 장면이다. 토드와 러빗 부인이 시체를 가지고 피아를 만들기로 결심하는 부분이다. '벽돌 장수' '이빨 부러져' '약장수' '씨' '예수' '그림 못 써' 등 아이들이 주고 받는 대화는 뮤지컬계 '쓰리랑 부부'

김미화·김한국이라 할 만했다. "선거철에 별미인 정미인 햇살은 뻥한 맛" 등 현재에도 통용 가능한 풍자는 덩이다.

오묘해졌지만 손드하임 원형은 여전히

손드하임 일부 마니아는 이번 시즌에 실망을 표할 지도 모른다. 원작의 그로테스크한 기운 대신 코믹한 분위기의 향취가 곳곳에 배어나기 때문이다. 1막 마지막 장면에서 "갑나게 뜨거운 부부?" "싱거워 ~ 설탕을 칠까?" "아니~ 기름을 쳐" "무슨 기름?" "아이 러브 유" 등 말장난이 넘치기도 하다. 뮤지컬의 잔혹한 기운을 누그러뜨리지만 원작의 날 것 같은 날카로움은 다소 무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불협화음으로 점철된 넘버들이 손드하임 특유의 긴장감을 조성한다. 특정한 길링 넘버가 없지만 터핀 판사의 음흉함과 러빗 부인의 수다스러움 등 캐릭터의 성향이 체화된 넘버, 이중창·합창에서도 제작각인 화음의 불연속성, 귀가 불편함의 연속인 가운데서도 선율만 흐르는 곳에서 문득 배어 있는 서정성 등 음악은 마치 틀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쾌감을 안긴다.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거장 대접을 받는 손드하임은 '오페라의 유령' '캣츠' 등으로 영국을 대표하는 뮤지컬 작곡가로 거듭난 앤드루 로이드 웨버와 비견되는 인물이다. 한국에서 가요를 연상케 하는 멜로디로 인기를 끄는 프랭크 와일드혼보다도 존재가치를 인정 받는다.

/김민근 기자

전주미술관은 전북에서 활동하는 원로작가전을 연다.

'풍경, 희망을 노래하다-전동희'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60여년에 걸친 작가의 작품세계가 연대기 순으로 구성돼 있어 그의 삶과 예술세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1970년대 대표작인 <고산동에 일우경> <수련도> <정물> <내변산 화바위> 등의 작품은 작가가 청년 시절에 구상과 비구상을 오가며 그린 것으로 그의 창작의지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1980~90년대의 작품(강화일우) <변산 우반동굴암> <백두에 추상> <제주의 일우> 등은 진경을 관념화시킨 독특한 화법이 중심을 잡고 있다.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작품 <박연폭포> <구룡비룡도> <여의주> <제주의 기암> 등에서는 물이 흐르는 듯한 유연함이 돋보이며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청명한 컬러는 전통회화의 작품세계가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동희의 작업은 실경의 재현과 반복에 그치지 않고 비움의 미학을 바탕으로 인간과 현실, 자연, 희망, 철학, 성찰을 통한 은유적 표현의 풍경으로 발전되었다.

전주미술관 최미남 학예실장은 "드러내기 보다는 묵묵하게 작업에 임해 온 전동희 작가의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알리고, 작품에 담겨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전시는 7월 5일~17일 전주미술관 제1, 제2, 제3 전시실에서 열린다. /정해은 기자

카카오게임즈 출범 가상현실·스마트TV 게임 진출

카카오의 게임 전문 계열사 (주)엔진이 (주)카카오게임즈로 1일 새출발한다. 카카오게임즈는 새로운 기업 브랜드 로고도 발표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사명 변경과 함께 '글로벌 멀티 플랫폼 게임 기업'을 회사의 목표 가치로 선언했다.

모바일 기기, PC 온라인, 가상현실(VR), 스마트TV 등 모든 디스플레이에 카카오게임즈의 게임을 탑재할 계획이다. 북미 시장을 위해서는 '카카오게임즈 미국'을 세울 예정이다. 현재 북미에서 다음게임의 '검은사막'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아울러 카카오게임즈는 파트너사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인게임 광고 수익모델인 '카카오게임 AD+(애드플러스)'를 이달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애드플러스는 파트너 게임사들에 게임내 광고를 통한 새로운 수익원을 제공하고 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탄력적인 플랫폼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21%의 고정 수수료율을 책정해왔다. /김민근 기자

이색적인 선율 김나영 해금연주회

9일 우진문화 예술극장서

우진문화재단의 연중기획공연 '우리 소리 우리가락'이 오는 9일 오후5시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109번째 공연에는 해금연주자 김나영(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전수자)이 <한결음>이라는 주제로 무대를 꾸민다.

김나영은 탄탄한 학습과정과 다양한 연주 경험을 거쳐 전라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의 연주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해금연주자이다.

김나영은 해금에 대해 '단지 두 개의 줄에 활대를 갖는 것만으로 세상의 모든 감성을 담을 수 있었던 악기'라고 표현한다. 그녀는 해금이란 악기를 접하고 해금이 좋아 두서없이 배웠던 10대, 더 빨리·더 많이 배우고자 교만했던 20대를 거쳐 이립의 나이를 목전에 둔 요즘에서야 비로소 해금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서용석류 해금

산조)와 <경기대풍류>, <해금과 구름을 위한 메나리>를 들려준다.

'서용석류 해금산조'는 남도적 음악 어법인 판소리 더늠(판소리 명창들에 의하여 노랫말과 소리가 새로이 만들어지거나 다듬어져 이루어진 판소리 대목)으로 구성돼 선율 전개가 자연스럽다. '경기대풍류'는 경기굿판이나 승무 반주음악으로 연주되는 경기대풍류를 해금·가야금·거문고의 악기 편성으로 이색적인 대풍류를 감상할 수 있다. 박경훈 작곡 '해금과 구름을 위한 메나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피아노와 해금을 위한 편성으로 편곡되어 초연된다.

이번 공연과 관련해 김나영은 "해금이 마냥 좋았던 처음의 시절로 돌아가 온 마음을 해금의 선율에 담아보고자 노력했다며 더더 가더라도 바르게 가기 위한 저의 한결음을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될 듯합니다."라고 말했다.

공연문의는 우진문화재단 272-7223으로 하면 된다. 전석 15,000원, 사랑티켓 sat.or.kr(6,000원) /정해은 기자



해금연주자 김나영.

'인천 펜타포트' 라인업 공개 '스웨이드' ~ '러브엑스테레오'

올해로 11회를 맞는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 최종 라인업을 공개했다.

1일 펜타포트에 따르면 옥상달빛, 제이래빗, 신세하, 러브엑스테레오 등 인기 아티스트들이 화려한 라인업을 마무리했다.

앞서 스웨이드(Suede), 넬(NELL), 투 도어 시네마 클럽(Two Door Cinema Club), 패닉 앳 더 디스크(Panic! At The Disco), 위저(Weezer), 나싱 락 락비츠(Nothing but Thieves), 이디오테일(IDIOTAPE), 각스(THE KOXX), 데이브레이크, 페퍼톤스, 디 어클라우드, 정준일 등이 포함된 라인업으로 화제를 모았다. 올해는 김창기, 이운정(veryvery), 피터팬컴플렉스, 위아더나잇이 함께 여는 김광석 20주기 스페셜 스테이지와 기타리스트 김도균, 토미기타, 김대진이 만드는 펜타포트 슈퍼밴드 등 독자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공연이 모두 끝난 뒤 맥주와 함께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카스 블루 스테이지 라인업 덕펄스, 숄탄오브더디스코, 모나치, 투디스텔로 등 밴드 중심으로 강화해 밤새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준비했다.

이 외에도 투키 아티스트부터 전설이 된 아티스트까지 만날 수 있는 신한카드 스테이지, 레게·삼바·보사노바·아프리카 퓨전음악 등 폭 넓은 장르를 선보이는 지포 원 러브 스테이지 등을 선보인다. /김민근 기자

서울옥션 '토이' 경매 100% 낙찰

서울옥션이 지난달 30일 마감한 'Collectible Toys' 온라인 경매가 낙찰률100%를 기록했다.

'백투더퓨처', '배트맨', '베어브리' 등 출품된 피규어16점이 모두 새주인을 찾아갔다.

경매 최고가는 80만원에 시작, 155만원에 팔린 한정판 베어브리 '스타워즈 캐릭터'다.

최대 경합은 심세한 표정과 의상이 돋보인 '바릴린 먼로'(1/4)다. 30만원에 시작, 24회 응찰로 125만원에 팔렸다.

영화 '백투더퓨처' 30주년 기념 한정판 토이는 시작가의 2배를 웃도는 110만원에 낙찰됐다. 영화 '배트맨'의 주인공과 인기 캐릭터를 세트로 제작한 피규어는 총 16회의 경합을 벌여 시작가의 3배가 넘는 100만원에 팔렸다.

이 경매는 지난 15회 온라인 경매에서 피규어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서울옥션이 새롭게 론칭한 '아트 토이' 첫 번째 경매였다. 아이같은 어른 '키덜트족'을 겨냥해 'Collectible Toys'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서울옥션은 "토이 경매의 주요 고객층은 30~40대 남성이었다"며 "국내 토이 마니아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옥션 7월 20일부터 서울옥션 평창동에서 16회 온라인경매 프리뷰를 진행 할 예정이다. /인진수 기자

11 12 13 14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7월 4일>

<p>▷쥐띠 48년생: 문서를 주고 받기에 좋은 운이다 60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운. 72년생: 이성으로 인해 구실이 따르니 동성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 틀이 없다. 84년생: 방심하지 말고 두루 살펴피라.</p>	<p>▷소띠 49년생: 지나친 고집은 금물. 61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를 주의하라. 73년생: 물에 따뜻하게 유지하고 차가운 음식은 피하라. 85년생: 마음에 인정이 필요한 때, 작은 일에도 동요가 일어나니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p>	<p>▷호랑이띠 50년생: 매사 부드럽게 행동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62년생: 매사에 주의하고 자중함이 필요한 때. 74년생: 처음에는 힘드나 나중에는 좋으니 실망하지 말고 기다려라. 86년생: 구설수가 따르니 모든 일에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p>	<p>▷토끼띠 51년생: 타인에 의해 억지로 행동하지 마라. 63년생: 심신에 신경써야 하는 운. 75년생: 금전운이 좋아지는 때이나 요행을 버리는 일은 금물. 87년생: 분주한 가운데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p>
<p>▷용띠 52년생: 사소한 일에도 꼼꼼하게 살펴피라. 64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일찍 움직여라. 76년생: 겉으로는 서로 웃으나 속으로는 적대감이 팽배한 운. 88년생: 체계적인 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련한 상황이 발생한다.</p>	<p>▷뱀띠 53년생: 중요한 일은 잠시 미루는 것이 좋겠다. 65년생: 멀리 보는 혜안이 필요하다. 77년생: 무심코 던진 말로 인해 곤란함이 생긴다. 89년생: 도움을 요청해도 도움 주는 사람이 없으니 결국 혼자 이겨나가야 하는 운.</p>	<p>▷말띠 54년생: 외적으로는 잘 흘러가나 내적으로는 막힘이 많으니 내실을 다져라. 66년생: 먼저 베풀면 일이 잘 풀린다. 78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외부로부터 방해로 받게 되니 때를 기다려라. 90년생: 열심히 해도 명장은 알아주는 이 없다.</p>	<p>▷양띠 55년생: 먼저 베풀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 67년생: 타의가 아닌 자의가 움직일 때 행하여야. 79년생: 마음에 비뚤어지는 때, 그늘속목 여유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91년생: 여자는 이성을 주의하라.</p>
<p>▷원숭이띠 56년생: 금전거래는 삼가야 한다. 68년생: 헛 사람으로 인해 마음 상할 일이 생길 운. 80년생: 지나친 의욕은 금물. 92년생: 독단독행은 삼가고 타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p>	<p>▷닭띠 57년생: 뜻밖의 귀인이 나타난다. 69년생: 물러서야 할 때와 나아가야 할 때를 잘 판단해야 하는 운. 81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 93년생: 준비하는 시기로 생각하고 행동하라.</p>	<p>▷개띠 46년생: 원형은 삼가라. 58년생: 분주하지만 하고 큰 소득은 없다. 70년생: 작은 일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운. 82년생: 평소 익숙했던 일들에 대해 실수가 발생하는 운이니 다시 한번 살펴피라.</p>	<p>▷돼지띠 47년생: 중간 중간 일에 막힘이 있는 운. 59년생: 겉으로는 대치상황이나 내면은 같은 마음이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71년생: 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곤두서는 운이다. 83년생: 하나를 던지면 두 개로 돌아오니 언행에 주의하라.</p>